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에제키엘 예언자

마태오 제8주일

성 마리아(막달라인) 사도대등자

성 마르켈라 수녀순교자

제7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고린토 전 1,10-17 / 봉독서 183
- 복음경 : 마태오 14,14-22 / 112, B 4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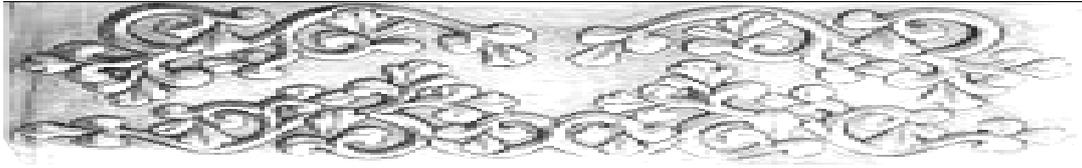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에제키엘 예언자

우리 정교회는 7월 23일을 구약의 네 명의 대예언자 중의 한 명인 에제키엘 예언자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히브리 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예언자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순교적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가 히브리 민족의 잘못과 불신앙을 크게 비판하고 질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소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소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

하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에제키엘을 비롯하여 모든 예언자는 위기의 순간에 백성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의 설교는 강물처럼 거침없고, 숲을 태우는 불길처럼 격렬합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언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끝마칠 때는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쇄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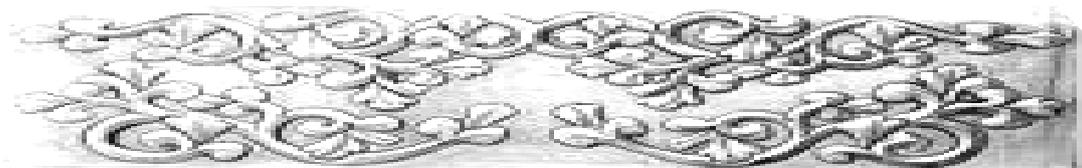
올해는 근대 활판인쇄술의 발명자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죽은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글쓰기는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인류 문화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항상 시간이 많이 드는 힘든 과정이었고 동시에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용도 적게 들면서 빠르게 옮겨 적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메르인들, 이집트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구텐베르크가 1435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454년 인쇄기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완성함으로써 도래하였습니다.

이 인쇄기를 가지고 첫 번째로 인쇄할 책으로 선정된 것은 라틴어 성서였습니다. 1455년 2월 22일, 1,282쪽 분량의 성서를 300부 인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의 성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쇄된 책으로, 많은 이들은 이 책보다 더 훌륭하게 인쇄된 책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 책의 복사본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가치있는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예전에 한 젊은이가 ...

예전에 한 젊은이가 산 속에 은거하는 어떤 이름난 은둔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도자여, 바른 믿음을 기르고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러자 수도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젊은이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수도자는 젊은이를 이끌고 가까운 강으로 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 속으로 충분한 깊이만큼 들어간 수도자는 젊은이의 머리가 물 속에 잠기도록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가 벗어나려고 애쓰어도 불구하고 수초 동안 그대로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물 밖으로 나오자, 수도자는 물었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젊은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공기요, 공기!! 전 오로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만이 간절했습니다!” “젊은이여, 돈이나 재산, 즐거움, 권력 등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수도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저 숨을 쉴 수 있는 약간의 공기만 바랐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말하였습니다.

“젊은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자네가 단지 공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힘과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야만 한다네.”

▶ 아타나시아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7월 24일 화요일 축일을 맞이하는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예레미야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여름 수련회(English Camp) ▷ 올해도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초등부(7월 30일~8월 4일), 중·고등부(8월 4일~6일) 여름수련회(English Camp)와 신데즈모스(7월 27일~29일)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초등부 : 15만 원, 중·고등부 : 5만 원, 신데즈모스 : 5만 원입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 오는 8월 6일은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입니다. 이날 축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도원으로 가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차편과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하니, 사무실로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여름 수련회 ▷ 올해는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초등1부(7월 27일~29일), 초등2부, 중·고등부(7월 30일~8월 1일), 신데즈모스(8월 20일~22일) 여름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련회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간 예식

·7월 24일(화) ▷ 성 크리스티나 대순교자, 성 보리스 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